

2023. 9. 2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2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

복지정책과장

하영태

02-2133-731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10쪽

복지정책팀장

박진용

02-2133-7312

## 서울시, ‘약자와의 동행’...추석명절동안 취약계층과 함께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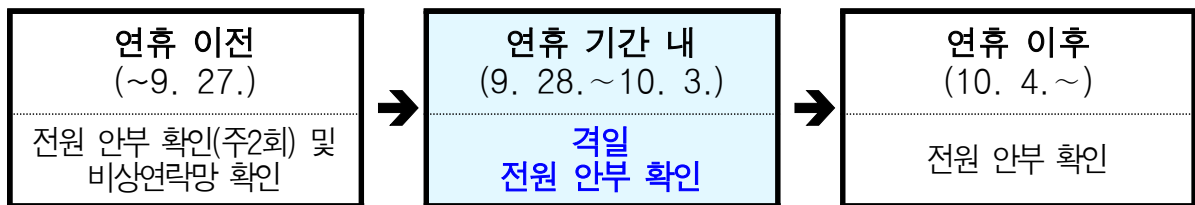
- 23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위문비 지원 및 어르신·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강화
- 연휴기간 38개 노숙인 시설 1일 3식 및 쪽방주민 문화활동 지원
- 시설 이용 어르신·장애인 위문금품 지원 및 소외 이웃 위한 희망마차 운영
- 180개 복지관 송편빚기·합동차례 등 프로그램, 14개 시립 장사시설 정상 운영

‘약자와의 동행’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더욱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5일(월)부터 10월 4일(수)까지 「추석 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」을 추진한다.

취약계층 종합대책은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위문비 지급 및 취약어르신 안부확인 ② 노숙인·쪽방주민 지원 ③ 시설 이용·입소자 위문금품 지원 ④ 민간자원·복지관 등 연계 취약계층 특별지원 및 위기가구 집중관리 ⑤ 시립 장사시설 정상 운영 및 상황실 통한 지원 총력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된다.

〈① 기초생활수급가구 위문비 지급 및 취약어르신 안부확인〉

- 명절 연휴를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가구 (※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 23만여 가구에 3만 원씩 추석명절 위문비를 지급한다. 위문비는 지난 15일(금)부터 가구별 계좌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.
- 또한 명절 기간동안 취약어르신 36,091명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취약어르신 36,091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.
  - 연휴기간 동안에는 격일 단위 안부확인을 통해 기존 안전확인 및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며, 사물인터넷(IoT) 기기를 통한 맥 내 움직임, 온도, 조도, 습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확인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 및 실행할 계획이다.
  - 취약어르신의 안부확인은 생활지원사 3,054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25명이 담당한다.



〈② 노숙인·쪽방주민 지원〉

-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설 거주 또는 거리 노숙인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 시설 38개소에서는 평시 1일 2식을 제공하던 것을 1일 3식 제공으로 확대한다.
-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 노숙인 이용시설은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며,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처한다.

-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연휴기간 동안 노숙인에 대한 퇴실조치 없이 운영되며,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할 자치구 및 시 자활지원과로 통보하는 등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.
-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, 시설 또는 무료진료소에서 지정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며 만약 연휴 기간 중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‘우선 진료-진료의뢰서 사후 발급’ 체계로 운영한다.

□ 다섯 곳(돈의동, 창신동, 남대문, 서울역, 영등포)의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주민 2,407명에게 후원 물품과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.

- 상담소별 50만 원씩 주어지는 문화활동비로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명절 차례상을 차리고 명절 전 만들기·송편 나눔 행사 등 상담소별로 명절 분위기에 맞춘 문화활동을 진행한다.

구 분	돈의동	창신동	남대문	서울역	영등포
후원물품	부식세트 200박스 (삼성SDS) 등	희망키트 180개 (모금회) 등	식료품세트 350상자 (모금회) 등	식료품세트 750상자 (모금회) 등	식료품세트 350상자 (모금회) 등
문화활동내역	명절차례행사(9.27.)	명절 전 만들기(9.25.)	송편나눔행사(9.28.)	모듬전 나눔(9.16.)	영화관람

-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는 지난 9월 16일(토) 명절 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. 봉사자들이 다함께 모여 전을 만들고, 쪽방 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·배달하여 따뜻함을 전했다.



명절 전 나눔 행사(서울역 쪽방상담소)



명절 전 전달(서울역 쪽방상담소)

### 〈③ 시설 이용·입소자 위문금품 지원〉

-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위문금품을 지원한다. 41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1,966명에게는 8월 25일부터, 22개소(무료양로시설 6개소, 기초수급 우선 입소 요양시설 16개소)시설에 있는 1,176명의 어르신에게는 1일(금)부터 위문금품을 지급하고 있다.

### 〈④ 민간자원·복지관 등 연계 취약계층 특별지원 및 위기가구 집중관리〉

-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, 8월 28일(월)부터 9월 27일(수)까지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자치구 등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‘희망마차1)’가 집중 운영된다.
- 대상은 긴급 생계 위기가정, 미혼모·한부모 및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세대 1,210가구이며, 약 5천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, 추석맞이 특별선물 등이 지원된다. 거동이 불편해 이용이 어려운 긴급위기가정 등에는 자치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한다.



희망마차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습

1) 희망마차 : 기업(이마트,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) 등 민간이 기부한 자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

□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(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)를 비롯한 기초푸드뱅크·마켓센터 38개소에서는 8월 28일(월)부터 9월 27일(수)까지 지원 품목 선택 사항을 확대해 제공한다.

○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및 기초푸드뱅크·마켓센터는 저소득 가정, 한부모 가정 등 약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,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. 평상시에는 3~5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, 선택 확대 기간 동안은 최대 8개 품목까지 고를 수 있어 이용 시민이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.

※ 지원물품 : 신선식품(냉동닭 등), 식료품(쌀, 라면 등), 생활용품(세제 등)

□ 서울시에서 실직 또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외부 활동 없이 지내는 사회적 고립가구는 약 5만 3,000가구에 이른다. 시는 이들이 명절마저 단절된 채 지내는 일이 없도록 명절 연휴 전후 기간 중 1,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과 손 잡고 따뜻한 안부인사를 전한다.

○ 만 40세~67세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돌봄단은 명절 연휴 전, 후(9.25.~9.27, 10.4.~10.6.)로 대상 가구와 전화 연락을 하면서 2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, 가정 방문을 통해 안위를 살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연락을 취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.

□ 또한 서울시는 180개소의 종합복지관에서 총 49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.

구	분	복지관	프로그램	주요 프로그램
합	계	180개	491개	
종합사회복지관		96개	255개	취약계층 명절 특식 나눔, 한가위 음식 만들기, 명절선물 전달 등
노인종합복지관		37개	138개	송편빚기, 영양 밀키트 지원, 합동 차례 지내기 등
장애인종합복지관		47개	98개	재가 장애인 명절선물 전달, 추석맞이 척사대회 등

-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는 9월 14일(목)부터 9월 18일(월)까지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, 지역 주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‘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’ 명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. 오전에는 인권부스, 미니바자회 등 부대 행사, 점심 특식 제공 및 명절 음식 나눔, 오후에는 윷놀이 대회를 통해 다함께 한가위의 정취를 나눴다.



추석 행사 개막식(영등포장애인복지관)



윷놀이 대회(영등포장애인복지관)

-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강서구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9월 15일(금), 9월 19일(화) 추석맞이 명절 음식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.



명절음식 만들기(반포종합사회복지관)



송편만들기 ‘얼썩~ 한가위’(가양7종합사회복지관)

**〈⑤ 시립 장사시설 정상 운영 및 상황실 통한 지원 총력〉**

- 추석 성묘객을 위해 서울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립승화원(경기도 고양시 소재)을 비롯한 시립 장사시설 14개소(분묘 4만 4,000여기, 봉안 8만 3,000여위 등)를 정상 운영한다.

-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28일(목)부터 10월 3일(화) 6일간 용미리 묘지 순환 셔틀버스가 재개된다. 인근 버스정류장부터 묘지까지 2대의 셔틀버스를 8시~17시 무료로 운행한다.
  - 성묘인원 집중에 대비해 승화원과 용미리 1묘지에 추석 연휴 및 직전 2주간 교통인력을 배치하여 교통 통제 및 주차 안내 등을 실시한다. 승화원과 용미리 묘지 진입로 등 상습 정체구역에는 교통경찰이 배치되어 혼잡을 예방한다.
  - 또한 9월 28일(목)부터 10월 3일(화) 6일간 ‘성묘지원 상황실’을 운영하여 이용 고객의 각종 편의제공 및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. (서울시립승화원 상황실 031-960-0290)
- 서울시는 9월 29일(금) 10시 무연고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. 추모시설운영처 직원들이 무연고 추모의집(용미리 1묘지)에서 제사를 지내며 무연고 사망자들의 영령을 위로한다.
  -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성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온라인 성묘시스템인 ‘사이버 추모의 집’을 운영한다. 시립장사시설 이용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승화원 누리집([www.sisul.or.kr](http://www.sisul.or.kr))에 들어가 장사시설-사이버 추모의 집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. 사용료는 무료다.
  -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는 고인을 검색하여 사진을 올리고 헌화하거나 차례상 음식을 차린 후 추모도 가능하다.
  - 연휴기간, 경제적 상황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자치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.
  -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“시정기조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에 맞춰, 모두가 어려움 없이 명절을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.”라며 “소외되는 사람 없이, 또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주요 추진 사항	부서	담당자	연락처
노숙인·쪽방 운영	자활지원과	이진산 이신옥	02-2133-7484 02-2133-7491
「희망마차」 및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	안심돌봄복지과	최현영	02-2133-7396
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	안심돌봄복지과	이진영	02-2133-7388
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	어르신복지과	이주문	02-2133-9535
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	장애인자립지원과	김혁	02-2133-7463
시립 장사시설 성묘객 안전 관리	어르신복지과	김승균	02-2133-7434



**Q1. 추석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은 목적이 무엇인가요?**

-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노숙인·쪽방주민·독거어르신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대책입니다.

**Q2.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취약어르신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**

-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 23만 1,120여 가구에 가구당 3만 원씩 위문금을 지급합니다.
- 65세 이상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 6,091명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·후로 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비상시에는 가정방문이 이뤄집니다.

**Q3. 노숙인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?**

- 연휴기간 동안 시설 거주 또는 거리 노숙인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 시설에서는 1일 3식을 제공합니다.
-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24시간 운영되며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.

**Q4. 희망마차는 무엇입니까?**

- 기업 등 민간이 기부한 자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희망마차는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긴급 생계 위기가정, 미혼모·한부모 및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세대 1,210가구를 찾아가 생필품 등 총 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.

**Q5.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?**

- 1인당 1만 원의 위문금품이 지원됩니다.
-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에 입소한 총 1,966명의 당사자들에게는 8월 25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, 22개소(무료양로시설 6개소, 기초수급 우선 입소 요양시설 16개소)시설에 입소한 1,176명의 어르신에게는 9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.

**Q6.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**

- 서울에서 실직 또는 질병 등 부상으로 외부 활동 없이 지내는 사회적 고립가구는 약 5만 3,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- 이들 가구에 대해서 우리동네돌봄단 1,200명은 명절 연휴 전후로 전화 연락을 하면서 2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, 가정방문을 통해 안위를 살피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.

**Q7. 경제적 어려움 등을 느낄 경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?**

- 연휴기간동안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자치구 종합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
- 종합상황실에서는 공적급여, 공적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, 연휴기간이 끝난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한 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